

- 주요 뉴스: 미국 금융당국, SVB 사태 관련 예금자 보호에 나설 방침 구제금융은 미고려
 - 미국, 2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상승세 둔화 여부 3월 FOMC 영향 등에 관심
 - 중국 전인대, 리창 신임 총리 임명. 이강 인민은행 총재와 류쿤 재정부장은 유임
 - 중국 2월 사회용자총량, 증가세 지속. 당국의 경기회복 지원 의지가 반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SVB 사태 여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4.6%],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2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은행권 불안 및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2.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통화긴축 강화 전망이 상충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6%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21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7% 상승, 한국 CDS 상승

		3/10일	3/3일	전주말대비			3/10일	3/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61.6	4,045.6	-4.55%	국채 금리 10y	미국	3.70%	3.95%	-25bp
	유럽	453.76	464.26	-2.26%		독일	2.51%	2.72%	-21bp
	중국	3,230.1	3,328.4	-2.95%		영국	3.64%	3.85%	-21bp
	일본	28,144	27,927	0.78%	CDS 5y	한국	43bp	41bp	2bp
	한국	2,394.6	2,432.1	-1.54%		중국	74bp	65bp	9bp
환율	달러지수	104.58	104.52	0.05%	위험 지표	EMBI+	409	390	19bp
	유로화	1.0643	1.0635	0.08%		VIX	24.80	18.49	34.13%
	엔화	135.03	135.87	0.62%		WTI유	76.68	79.68	-3.77%
	위안화	6.9172	6.9043	-0.19%	원자재	구리	404.6	407.8	-0.80%
	원화	1,324.2	1,301.6	-1.71%		금	1,868.3	1,856.5	0.6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금융당국, SVB 사태 관련 예금자 보호에 나설 방침. 구제금융은 미고려

- 옐런 재무장관은 SVB 사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신뢰하기에 대규모의 구제금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아울러 지금은 예금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
- 한편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의 안전과 기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인 설립 방안을 주요 은행 관계자들과 논의. 당국에서는 주말동안 SVB 합병이 가능한 은행을 물색하고 있으며, 적절한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13일부터 파산 절차를 시작할 전망
- 언론 매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금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예금액의 50%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
-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위험의 통제 가능 여부에 초점. SVB의 주요 고객은 벤처투자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이기에 예금 계정의 예금액이 대부분 법적으로 보호받는 25만달러를 크게 상회
- SVB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로 15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예금이 동결되었고, 상당 기간 고객들은 정상 출금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투자자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 또한 SVB의 자산규모가 2090억달러로 작지 않다는 점 역시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요인
- 그러나 '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징후는 매우 적으며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은행들의 자본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는 등 은행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
- SVB 사태의 핵심 원인은 연준의 강력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장기국채 비중을 급격히 늘린 경영진의 어리석은 판단. 이에 유동성 문제는 SVB에만 국한된 문제일 가능성
- 아울러 당국은 구제금융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나,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 한편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의 경우 SVB의 자산매각이 마무리되면 예금액의 85%~90% 수준에서 지급이 가능할 전망(Center for American Progres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상승세 둔화 여부·3월 FOMC 영향 등에 관심

- 3/14일 2월 소비자물가(CPI)가 발표될 계획이며, 이는 3월 FOMC(21~22일)를 앞두고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2월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각각 6.0%, 0.4%를 나타내 1월(6.4%, 0.5%) 대비 낮아지고, 근원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각각 하락 및 보합(5.6%→5.5%, 0.4%→0.4%)을 예상
- 이와 같은 시장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2월 임금상승률 둔화에 이어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다시 한 번 발신할 가능성. 다만 연준은 그동안의 통화긴축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숙고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3월 0.50%p 인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Bloomberg Economics)
-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SVB 사태로 연준이 경제 혹은 정치적 측면에서 0.50%p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 또한 3/15일 공개되는 2월 소매판매의 전월비 증가율이 하락(3.0%→-0.1%)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로 연결

■ 중국 전인대, 리창 신임 총리 임명. 이강 인민은행 총재와 류쿤 재정부장은 유임

- 시진핑 주석의 판공실 주임이었던 리창이 새롭게 총리로 임명. 그는 실용주의자이며 친기업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 반면 인민은행 이강 총재와 류쿤 재정부장은 예상과 달리 유임에 성공. 이번 결정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경제 여건 가운데 금융안정을 위한 당국 의도에 기인

■ 중국 2월 사회용자총량, 증가세 지속. 당국의 경기회복 지원 의지가 반영

- 2월 사회용자총량은 전년동월비 9.9% 늘어 작년 11월 이후 최고 증가율 기록. 이번 결과는 당국이 글로벌 경기 불안과 부진한 국내 경제활동 등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증시 서머타임 적용 시작.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SVB 사태, 경기침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블룸버그

(Silicon Valley Bank's Swoon Should Really Scare Us)

- 미국 은행지수는 3/9일 '20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인 -8.1%를 기록. 이는 SVB의 모회사인 SVB 금융그룹 주가가 60%나 폭락한데 기인. SVB는 다수의 미국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과 거래하며 자본금 기준 미국 내 16위 은행. 스타트업의 대량 현금 인출 등의 문제로 증자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
- 작년 이후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모두가 우려했던 경기침체를 피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이번 사태는 경기침체가 도래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요구
- 특히 그 동안 미국 경제성장에서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여도가 매우 높았음을 고려할 필요. 관련 부문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해고에 나선다면, 이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 노력, 경기 경착륙이 불가피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Hard landing or harder one? The Fed may need to choose)

-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불구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 이는 고령인구의 은퇴 증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부문으로의 수요 집중 등에 기인. 또한 기업들은 연준의 경기 연착륙 유도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감원을 자제
- 이에 연준은 고물가 통제를 위해서 시장의 경기 연착륙 기대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필요. 이는 ①기업의 감원 ②가계지출 축소 ③기업이익 감소 ④ 기업의 감원 확산 반복으로 이어져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소지. 그러나 연준은 물가안정이라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에 나설 우려

■ 신흥국 기업, 선진국 긴축정책 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 - 블룸버그

(A \$13 Billion Plunge in Bond Sales Hints at Pain for EM Credit)

- 팬데믹 초기 낮은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신흥국 채권발행이 급증. 그러나 금년 신흥국 채권매매 규모는 전년동기비 18% 감소한 600억달러로 '16년 이후 최소
- 이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및 인도 Adani 그룹 사태 등으로 인한 신흥국 채권시장 불안에 기인. 이러한 여파로 신흥국 채권매매는 투자등급채권에 집중. 향후 신흥국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전망

■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에 확신이 필요 - 블룸버그**

(Central Bankers Must Move Beyond 'We Don't Know' on Rates)

- 주요 중앙은행들은 팬데믹 이후 3년 내내 경제지표에 따른 정책 판단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별 지표와 함께 금융시장 움직임을 고려
- 연준 파월 의장은 0.50%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로 다음날 확정된 것은 없으며 지표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전 발언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호주 중앙은행 로우 총재 또한 50bp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몇 시간 만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
-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확신 부족은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 중앙은행들은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토대로 통화정책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시행할 필요

■ **연준, 물가통제 및 경기 연착륙 유도 위해 정확한 중립금리 파악이 중요 - 블룸버그**

(Fed Flies Blind on Monetary Policy With Rising Risk of a 6% Rate)

■ **에너지 가격 하락, 글로벌 경기 회복에 훈풍으로 작용 - WSJ**

(Global Economy Gets Tailwind From Falling Energy Prices)

■ **영국 정부, 공공지출 축소 등으로 성장둔화 극복은 어려울 전망 - Financial Times**

(The UK chancellor's fiscal conundrum)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